

## 본대로 들은대로 느낀대로

### 金 允 基

#### ■ 旅行과 見聞

人生은 旅路이다

人間으로 誕生해서 父母의 教育을 받고

社會를 爲하여 奉仕하다가

이 世上을 떠나는 것이다.

나는 旅行을 좋아 하지만 좀처럼 機會를 만들지 못했다.

벼르고 별려 今年初에 旅行을 하게 된 것이다.

旅行을 하면 보고 듣고 또 무엇인가 느끼는 것이 있어 여러사람들과 얘기거리가 많아져서 좋다.

#### ■ 高速道路와 새마을

3月25日, 50年만에 新婚旅行을 떠났다. 이날은 바로 나의 金婚紀念日이었기 때문에 新婚氣分을 내려고 偕老해은 妻와 三男을 同伴하고 집을 나섰다.

快晴한 날씨여서 떠날때부터 爽快한 氣分이었다.

高速道路 沿邊의 農村에서 草家집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빨강·파랑·노랑·지붕의 색깔이 각양각색이어서 일면 재미있게 느껴졌지만 또 너무 울긋불긋한 느낌이 있어 유치해 보이기도 했다. 우리農民에게도 美에 對한 감각이 必要하다고 느껴졌다.

비닐하우스가 훨씬 많이 눈에 띄게 됐으니 그만큼 農家의 所得도 增大되고 있으리라.

大田地方의 葡萄園이 特히 눈에 띄었다. 秋風嶺에서의 갈비湯 점심이 新鮮한 空氣와 더불어 風味였다.

大邱에 다다르자 第3工業園地에서도 벌써 工場굴뚝에서 煙氣가 치솟고 있어 活氣찬 모습을 볼 수 있었고 路邊의 사과밭에서 病虫害 豫防消毒을 하고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그러나 慶北地方의 山에 아직 나무가 적은것 같았다. 빨리 山들이 울창해야 할텐데……

慶州 佛國寺 호텔에 到着한것은 下午 5時였다. 慶州市에서 佛國寺까지 道路가 잘 擴張되어 慶州國立公園開發과 觀光開發 事業이 많이 進陞되어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 寺刹巡禮

26日 새벽 5時30分 起床하여 石窟庵으로 向하였다. 吐含山頂에 올라 섰을때 東海에서 해가 떠오르기 始作했다. 實로 神秘스럽고 莊觀이었다. 過去 여러차례 石窟庵에 왔지만 日出光景은 처음이어서 꽤 多幸하게 여겨졌다.

石窟庵에 들어가 부처님께 合掌再拜하고 일어서니 햇살이 부

처님에게 비쳐 한결 더 佛像의 石刻이 優雅하게 보였다. 새삼 千年新羅의 藝術의 優秀性에 경건한 마음이 들었다.

佛國寺의 回廊復元工事が 完成되어 境內도 말끔히 丹裝되어 있었다. 住持 月下스님을 뵈우고 서로 몇마디 얘기를 나눌 수 있어 반가웠다.

부처님과 스님을 對하는 瞬間 언제나 마음이 清謙해짐을 느끼는 까닭은 무엇일까?

慶州로 다시 가서 瞻星臺, 臨海殿을 求景하고 半月成을 돌아 보았다. 新羅時代의 文化藝術의 極致를 像想하면서 古都慶州를 出發, 釜山을 向했다.

釜山 못미처 梁山 通度寺에 들러 住持스님을 만나뵈고 부처님께 參拜했다.

極樂庵에서 83歲의 老스님 鍾峯大師를 뵈우고 法文을 몇句節 들었다.

老스님이 筆者에게 『治眼居士 <筆者의 佛名>는 至今부터 멋지게 사시오』 한다. 이 멋지게 살라는 말은 모든 權慾·金慾을 버리고 酒色을 멀리하여 無我의 境地에서 살라고 하는 말로 들렸다.

『自動車는 運轉士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人間의 肉體도 自動車나 마찬가지로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 잘 생각해 보시오』 이 老스님의 말은 나의 마음속에 길게 餘韻을 남긴다.

極樂庵에서 點心共食을 했는데 여기서 꽤 재미있게 느껴진것은 “大便所”를 “解憂所”로 小便所를 “休息所”라고 表意한 것이다.

老스님께 다시 울것을 約束하고 高速道路를 따라 釜山으로 向했다.

이날 저녁 「뉴동레호텔」의 溫突房에서 投宿했는데 食事は 海雲臺 암소갈비 집에서 푸짐하게 했다. 역시 韓食 溫突房과 韓食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좋다.

28日 아침, 호텔을 떠나 梵魚寺로 갔다. 길까지 進入路가 잘 鋪裝되어 있었다. 여기서도 住持 正觀스님을 뵈우고 부처님께 參拜했는데 그러고 보니 이번 旅行은 寺刹巡禮를 한 셈이 됐다.

우리나라 文化財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佛敎文化財도 其實 몇몇 石塔을 除外하고는 大部分의 寺刹建物이 여러차례의 災禍를 입어 再建한 것임을 생각할때 뼈아프게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布敎도 더 庶民大衆에 파고 들어 날로 거칠어가는 人心을 바로잡아 주었으면 좋으련만……

合掌하고 쳐다보는 부처님의 얼굴은 언제나 仁慈하기만 하다